

영암군, 19일 삼호실내체육관에서 일자리 박람회 개최

기업 60곳 참여, 청년·중장년·경력단절여성 맞춤형 일자리 제공

영암군(군수 우승희)이 구직자와 기업을 현장에서 연결하는 '2025 영암군 일자리 박람회'를 이달 19일 삼호실내체육관에서 개최한다.

이번 박람회는 '내 일(job)을 찾는 여정, 영암에서 시작된다'를 구호로 진행되는 구인구직 기회의 장.

박람회장에는 영암군의 다양한 산업을 대표하는 구인기업 60곳이 참여해 청년층, 중장년층, 경력 단절 여성 등 다양한 계층에게 맞춤형 일자리 정보를 제공하고, 채용 서류를 접수한다.

영암군은 구인구직을 돕기 위해 입서지원서 컨설팅관, 이미지 메이킹관 등을 운영

하며 이력서·자기소개서 첨삭, 면접 지도, 취업 정보 제공, 일자리 정책 안내 등도 병행한다.

아울러 박람회장 방문객에게 진로 및 심리 검사, 캘리그래피 체험 등 다양한 경험 기회도 제공한다.

박람회 참여 희망 구직자가 16일까지 영암 일자리 카페(061-473-2841)에 참가 신청 접수하면, 자기소개서·이력서 컨설팅, 기업매칭 서비스, 기념품 제공 혜택 등을 받을 수 있다.

박람회 당일 현장에서 참석을 신청할 수도 있고, 영암군은 행사장 방문객들의 이동 편의를 위해 목포고용센터 등에서

행사장까지 순환버스도 운행한다.

박람회를 마친 후에는 참여 구인기업과 구직자의 채용 매칭 결과 분석 등 성과를 거쳐 영암군의 일자리 정책에 반영할 계획이다.

전학준 영암군 지역순환경제과장은 "지역기업에는 활력을, 영암군민에게는 일자리를 연결하는 박람회에 많은 참여 바란다. 기업과 구직자 모두 만족하는 일자리 연결의 장으로 기능하도록 행사를 꼼꼼히 준비하겠다"고 말했다.

영암군은 참가자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고려해 행사 당일 구역별 운영 책임자와 안전요원을 배치하고, 현장 응급의료센터



운영 등으로 비상상황에도 대응할 예정이다. 영암/김희선 기자

무안연꽃축제 26~29일 개최

일로 회산백련지에서... 체험·공연 프로그램 풍성

전남 무안군은 여름을 알리는 대표 축제 '제28회 무안연꽃축제'가 26일부터 29일까지 4일간 무안 일로 회산백련지에서 개최된다고 9일 밝혔다.

축제는 '여름이 켜지는 순간, 무안에서'란 주제로 자연과 문화가 어우러진 다채로운 체험과 공연 등의 행사가 마련돼 초여름의 낭만을 수놓을 예정이다.

26일 박지현과 예녹의 개막공연을 시작으로 SUM:ON(썸온) 콘서트(한동근, 순순희, 엔분의일), 대학가오제 리턴즈(구장모, 흥서범, 조갑경), 청춘 마이크와 태근노래자랑(29일) 등 4일간의 알찬 여정과 함께 또 다른 이색 볼거리인 야간경관 조명 프로그램을 준비 중이다.

박문재 축제추진위원회 위원장은 "남녀노소 누구나 즐길 수 있는 음악, 문화, 체험이 어우러진 축제가 될 것"이라며 "이번 축제가 지역 상권을 살리고 활력을 주는 계기가 되길 소망한다"고 밝혔다. /무안군 제공



진도군은 '김 산업 진흥구역 지원사업' 추진과 관련해 최근 중국 상해에서 개최된 국제식품박람회(SIAL)에 동양영어조합법인(대표 김남연)과 함께 참가해, 진도 곱창김 홍보 전시장을 운영하며 큰 호응을 얻었다.

이번 박람회에서 진도 곱창김은 다수의 중국 기업으로부터 수입 의뢰를 받는 등 많은 관심을 받았으며, 동양영어조합법인은 중국 방송사(CCTV)로부터 장인 기업으로 선정돼 인터뷰를 하며 진도 곱창김

진도 곱창김, 중국 상해 국제식품박람회서 뜨거운 호응

중국 기업과 수출 MOU 체결을 통한 해외 시장 본격 진출

을 널리 홍보하는 성과를 거두었다.

또한 말레이시아 구매자(바이어)의 요청으로 곧 정식 계약을 할 예정이며, 중국 강소성에서 열린 한국 식품 설명회에도 진도 곱창김이 홍보 제품으로 섭외되는 등 국제적 인지도를 높였다.

특히, 이번 박람회에서는 진도 '곱창김

(GOPCHANG GIM) '표표를 전면에 내세운 새로운 포장 디자인이 관람객들로부터 큰 주목을 받았는데, 기존 김 포장지보다 두껍고 고급스러운 질감으로 인해 소비자들과 구매자(바이어) 모두에게 긍정적인 반응을 얻으며 '진도 곱창김'의 고급화에 성공했다.

진도군 농수산유통사업소 관계자는 "이번 SIAL 박람회 참가를 계기로 진도 곱창김이 세계 시장에서도 통할 수 있는 경쟁력을 입증했다"라며, "앞으로도 지역 특산물의 해외 진출을 위한 지원과 마케팅 활동을 지속적으로 이어가겠다"라고 밝혔다.

한편, 박람회 종료 직후에 동양영어조합법인은 중국 청도거성실업과 200만 달러 규모의 조미김 수출 업무협약(MOU)을 체결하며 본격적인 수출의 물꼬를 텄다. 진도/오재명 기자

광전매일신문 TEL. (062) 525-9775 FAX. (062) 528-4566

카메라 뉴스



장성군, 공무원 마음건강까지 살핀다

장성군이 지난 4일과 9일 양일간 민원담당 공무원 40여 명을 대상으로 '힐링 프로그램'을 운영했다.

방장산 국립장성숲체원을 찾은 공직자들은 맑은 공기 가득한 편백숲에서 △해먹 쉼 명상 △감정 오일 테라피 등을 함께하며 심신의 긴장을 달고 스트레스를 완화했다.

이후에는 현장을 방문한 김한중 장성군수와 차담을 나누며 업무 시 애로사항과 개선방안에 대해 격의 없이 소통했다.

김한중 군수는 "건강한 몸과 마음으로 행복하게 근무할 수 있도록, 앞으로도 더욱 관심을 갖고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장성/황해연 기자



영광군, 하절기 방역 강화... 감염병 예방 총력

영광군(군수 장세일)은 본격적인 무더위가 시작됨에 따라 말라리아, 일본뇌염 등 감염병 예방과 해충으로 인한 주민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하절기 집중 방역 활동을 강화한다고 9일 밝혔다. 이번 하절기 방역은 6월부터 10월까지 지속되며, 모기, 파리 등 위생해충의 활동이 왕성해지는 시기에 맞춰 군 전역에서 체계적인 방역을 실시한다. 특히 ▲인구 밀집 지역 ▲물 웅덩이 ▲하천변 ▲축사 및 공원 등 취약 지역 1,378개소를 중점 관리구역으로 지정해 선제적 방역에 나선다.

영광군 보건소는 6월부터 10월까지 정기 방역을 실시하며, 접근이 어려운 방역 취약지의 사각지대에는 주 2회 유충 구제를 실시하고, 인구 밀집 지역에서는 야간 성충 구제를 주 3회 시행하는 등 하절기 방역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영광/이현식 기자



담양군, 제30회 환경의 날 기념행사 열려

담양군은 지난 9일, 제30회 환경의 날을 맞아 (사)생태도시담양21협의회, 전라남도 지속가능발전협의회와 공동으로 기념행사를 열었다.

이번 행사는 '플라스틱 오염의 종식'을 주제로 전라남도 담양군의회, 지역 환경단체, 군민 등 200여 명이 함께한 가운데, 환경보전 유공자 표창을 비롯해 기념사와 축사, 환영사 등이 이어졌다.

식전행사로 는 실버합창단의 공연과 샌드아트 무대가 마련돼 참여자들의 호응을 얻었다. 행사장 한편에서는 '바람과 떠나는 부채여행', 'EM효소 만들기', '제로웨이스트 그린테라피' 등 기후위기 대응을 주제로 한 다양한 체험 프로그램이 운영됐다. 담양/이종욱 기자



새로운 에너지 세상

자연이 만든 깨끗하고 안전한 에너지로 세상은 더 밝아지고 우리는 더 따뜻한 미래를 꿈꾸게 됩니다.

태양의 힘으로 움직이고 바람이 만든 에너지로 밝게 빛나는 세상

한국전력이 깨끗한 에너지로 새로운 에너지 세상을 열어가겠습니다

